

주민주도형 상호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막는다

광산구 민·관·산·학 협력 '1313 이웃살림' 본격화 고위험군 발굴·이웃 관계망 통해 사회적 관계 회복

광주 광산구가 사회적 고립 없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 최초로 민·관·산·학 연대 협력 기반 '주민주도형 상호돌봄' 구축에 나선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사무실에서 지난 17일 사회적 고립 가구 돌봄망 형성을 위한 '1313 이웃지기 발굴'을 열었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혁신 연대사업인 '1313 이웃살림' 사업이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1313 이웃살림'은 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돌보고, 위기가구 1세대를 이웃단체 3명이 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 참여로 함께 돌보고, 서로 돌보고, 스스로 돌보는 '주민주도형 상호돌봄망'을 구축해 가족구

조 변화,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단절, 고립,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가 함께 사업 동력을 마련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사협, 복지기관, 선한기업100+ 원탁회의, 호남대학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민·관·산·학을 아우르는 추진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지역 140여 기업이 참여한 선한기업100+ 원탁회의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한 '5G 콤팩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1313이웃살림'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업 후원

으로 마련한 2억 7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박인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관내 복지기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은 TF를 구성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실행에 나선 광산구는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거주 비율이 높은 12개 동을 선정하고, 지역마다 10명씩 총 120명의 이웃지기를 모집했다.

민간 전문인력인 이웃지기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웃살림, 고립 가구의 사회적 관계 회복, 이웃 만들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이웃지기들이 1313 이웃살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전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인 '광산 함께 돌봄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함께 돌봄의 의미', 인권, 안전, 이웃살림과 이

웃지기 역할 등 교육을 마치고 11월 중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여기관들은 긴밀한 협업으로 이웃지기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이웃 관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광산구와 광산구 지사협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이웃지기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는 후원금 모금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복지기관은 사례관리·회의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기업, 민간 전문가, 복지기관, 행정, 시민이 똘똘 뭉쳐 시도하는 '1313 이웃살림'은 다시 한번 광산북지의 저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내년 주민참여 사업 55건 최종 선정 12억원 지원

광주 광산구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55건을 선정해 1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일반, 규정, 청년참여형)으로 18건 3억 5000만원 규모이며, 동 주민총회(지역토론회)를 거쳐 선정한 사업(자치계획형)은 37건 8억 5000만원 이다.

앞서 광산구는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해 164건을 접수했다. 각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 지역토론회,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열어 자치계획형 제안 사업 38건 발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와 조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분량동 신평마을 진입도로변 생활하수처리 시설 ▲광산구 향토문화유산 조사 및 자료집 발간 등 총 5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가 관내 초등학교에서 선·이주민 아동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놀이형 갈등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



박병규(왼쪽) 광산구청장이 제13회 대한민국 SNS(누리소통망)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광산구, 공직자 대상 교육

광주 광산구는 지난 16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해 시민의 정책 정보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이수화 강사가 어법 문장 및 어휘 순화,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 알아보기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광산구는 11월에도 공공언어 교육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행정 용어 및 외래어 대신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원주민·이주민 아동들, 놀이교육으로 유대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하남중앙초서 갈등 예방 교육

광주 광산구는 "원주민 아동과 이주민 아동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놀이형 갈등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서 나온 '학교 내 선·이주민 학생 간 친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청소년이 소통 능력을 키워 학교,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도록 '청소년 놀이형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한 광산구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총 6회 하남중앙초등학교(교장 나옥주) 5~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와 게임을 활용해 갈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고, 소통의 자세,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마을 현장에서 선주민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통,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선·이주민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누리소통망 활용 우수 지자체 입증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는 "제13회 대한민국 SNS(누리소통망)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매년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누리소통망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광산구는 활동성, 의사 소통성,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등 전체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2023 소셜이아워즈' 지자체 블로그 분야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누리소통망 활용 우수 지자체의 독보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누리소통망 창구를 운영하는 광산구는 각 누리소통망의 이용률, 특성을 반영한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와 유익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지기단,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홍보파트너'를 운영,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을 구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최신 경향에 맞춰 세로형 '쇼츠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드리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다양한 누리소통망 창구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치매안심센터, 산림청과 협약 '광산포레스트 기억쉼터' 운영

광주 광산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광산포레스트 기억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림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간병으로 장기간 누워있던 가족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장성숲체원과 연계해 11월 7일까지 주 2회 숲길 걷기, 뇌 근육 강화운동 등 치매환자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억쉼터 참여자들이 숲 체험을 통해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